



# 2009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 현장

## 낙농가 요구 외면한 정부 대책, 낙농대책의 핵심은 생산자 대책이 되어야

경북을 끝으로,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 성황리에 종료



12월 1일 전주 천하장사 가든에서 개최된 전북지역 대토론회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한 2009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 현장은 FTA 파고를 넘기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낙농가들의 목소리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현장에서는 낙농진흥회 실패의 결과를 농가가 그대로 떠안아 고통을 받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서 정부가 또 다시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실질적인 전국단위 쿼터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탕발림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강한 질책과 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토론회 기간동안 동행한 농식품부의 이성주 사무관은 중앙낙농기구는 낙농 최고의사결정 구조로 유지하면서 농가들이 반대한다면 낙농진흥회를 집유주체로 계속 유지하는 물론 직결전환 또한 하지 않겠다

▼ 12월 2일 나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전남지역 대토론회



▲ 12월 3일 마산 내서농협에서 개최된 경남지역 대토론회



◀ 12월 7일 충북낙협에서 개최된 충북지역 대토론회

며, 진흥회농가들이 우려하는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농가들은 이미 실패한 기구를 중앙낙농기구로 개편하여 연합쿼터제 추진, 가공원료유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옥상옥’ 일 뿐이라며 정부의 대책안으로는 정부 스스로 목표하는 전국 쿼터제 추진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했다.

또한 토론회 참석 농가들은 지금과 같이 유업체가 마음대로 농가의 재산권화되어 있는 쿼터를 삭감하는 구조로는 FTA 발효시 농가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낙농선진국과 같이 생산자가 주체적으로 쿼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낙농조합으로의 집유일원화와 함께 대등한 거래교섭력 확보를 위한 생산자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 12월 8일 농협안성연수원에서 개최된  
경기남부지역 대토론회



◀ 12월 9일 경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경북지역 대토론회

이승호 회장은 “금번 순회토론회는 FTA와 정부정책 부재로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농가 스스로 낙농산업을 지키겠다는 희망을 전국적으로 지핀 의미 있는 행사라고 자평한다”고 밝히며, “전국 농가의 숙원사항을 다시금 확인한 만큼 협회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정부, 대국회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3주간의 강행군에도 지친기색 없이 강한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11월 24일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이어진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는 12월 9일(수) 경북지역 토론회(경주시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